토크 주제

결핵 선진국이 되는 길 …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관건

앗 뜨거!

불꽃 튀는 열정으로 뭉친 사람들의 스 토 리 텔 링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고, 회원국들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개발 원조를 시행하는 회원국이 된 지도 3년이 되어 간다. 한국전쟁 직후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국가를 영위하기조차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당당히 세계의 어려운 나라를 돕는 선진국의 일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OECD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우리의 현실은 불명예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결핵의 경우 우리나라 신규 결핵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으로 후진국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말이지, 불명예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대한결핵협회 홍보대사이자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 중인 두 인물을 찾았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결핵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배려가 빛나는 매너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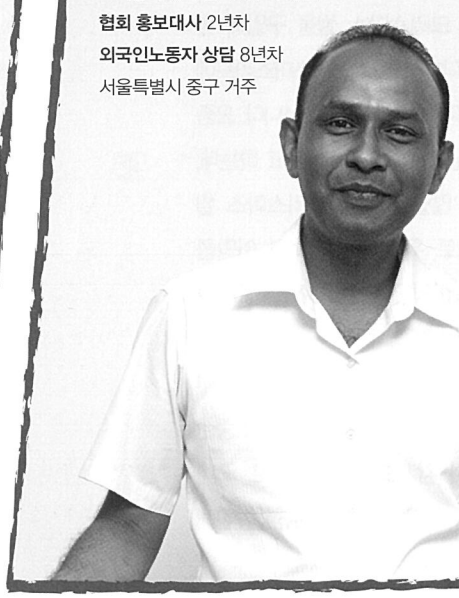
나르기자(Nargiza)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

우즈베키스탄에서 날아온 31살 두 딸 아이 엄마
협회 홍보대사 1년차
외국인노동자 상담 5년차
경기도 안산 거주

성실, 긍정의 달인

프레마랄(Premalal)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

스리랑카에서 온 45살 독거 남
협회 홍보대사 2년차
외국인노동자 상담 8년차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



협회 온라인
채널 잠시 알아보고
지나가실게요.

대한결핵협회 블로그
blog.naver.com/knta_pr
대한결핵협회 트위터
twitter.com/knta_pr
대한결핵협회 페이스북
www.facebook.com/kntapr

나르기자(Nargiza)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
(이하 N)

프레마랄(Premalal)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
(이하 P)

외국인 결핵 홍보대사들의 활동

N P 만나서 반갑습니다. 결핵 홍보대사를 맡은 나르기자와 프레마랄이라고 합니다.

N 저는 외국인노동자 모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약 복용법에 대한 설명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핵협회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활동한 지는 1년 정도가 됐고요. 지금 한국의 결핵 상황은 정말이지…, 눈과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결핵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길목인 안산 단원고등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달에 2~3회 정도 주말을 이용한 이동 상담을 시행하며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날씨에 이동 상담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리플릿 등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결핵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제대로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P 저는 협회 홍보대사로 활동한 지 2년 정도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협회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활동은 주로 전화를 통한 문의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나 외국인공동체를 대상으로 2~3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외국인이주법에 대한 설명 행사장에서도 결핵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결핵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신규 결핵환자 발병률은 후진국 양상

N 작년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람이 '결핵은 알고 있으나 한국에서 결핵이 발병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대답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결핵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핵은 가난한 나라 병이잖아요?

P 맞아요. 상담 차 전화를 하면 다들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란 가난하지만 결핵이 많지 않은데, 한국은 왜 결핵이 많냐고요. 아예 결핵이 없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들인 거지요.

프레마랄

국민 모두가 '버스카드'처럼 쉽게 빼서 쓸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하루 빨리 갖춰지길 바래요.

N 우즈베키스탄 사람 대부분은 결핵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 까닭은 국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결핵 종합 무료 병원이 수도권과 지방에 설립돼 있는 데다 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입원 수속을 밟고 치료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 결핵의 심각성 또한,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느낀 것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심각성을 느끼기는커녕 아예 관심 밖입니다. 가령, 결핵 검사가 무료라고 해도 쳐다보는 이는 드뭅니다.

P 스리랑카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나라, 한국과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정부에서 결핵 진단 및 치료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고,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있기에 한국처럼 많은 결핵 환자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아서인 것도 이유겠지만요. 어쨌거나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해에 3,600명 정도가 결핵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나라 인구밀도(490명/㎢)는 방글라데시(1,142명/㎢), 대만(637명/㎢)에 이어 세계 3위

N 한국에 결핵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건 결핵 관리 차원에서 출입 금지 등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더욱 심각한 사실은 국민들이 결핵을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 데 있어요. 결핵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환자들이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급기야 그 사실을 숨긴 채 바깥 활동을 하고 있어요.

P 밀집된 공간에 너무 많은 인구가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심각한 수준의 결핵 환자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거리를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사실이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바라는 점

N 결핵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니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받았으면 합니다. 외출 후엔 꼭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국 국민이 모두 결핵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P 정부 및 대한결핵협회를 주 측으로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하루속히 갖춰져 대한민국이 결핵 선진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